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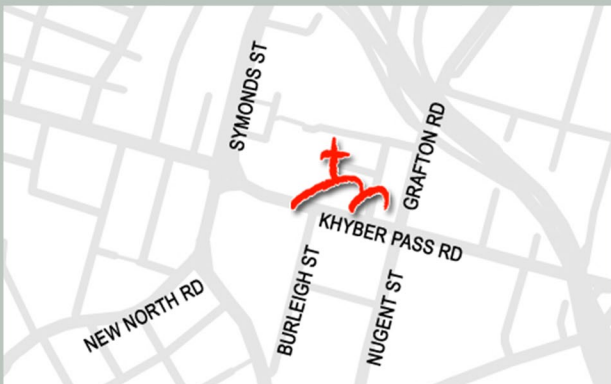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한 주간 저녁기도회가 오는 12월 16일(월)-20일(금)까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로마서 1:16)
장소: 월, 목, 금 / 청소년부실 화, 수 / 본당
3.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선교회별 연령입니다.
2남선교회/ 기혼-63년생 3남선교회/ 62-52년생 1여선교회/ 기혼-73년생
2여선교회/ 72-64년생 3여선교회/ 63-56년생 4남여선교회/ 올해와 동일
4.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주제: All in Christ, One in Christ! (갈라디아서 3:28)
장소: Orere Point Holiday Park
5. 2019년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잔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 오후 5-6시 저녁 식사 / 오후 6-7시 성탄 축하 / 오후 7시-8시
(성탄 감사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6. 올해 교회 요람에 누락되었거나 변경 혹은 수정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각 공동체 예배는 12월 14일(토요일)까지 드리고 2개월 방학에 들어갑니다.
8. 등록 교우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인애 집사 63/3 BurtonSt, Grafton 021-772-245

[12월 교회 사역 일지]

16-20일(월-금): 한주간 저녁 기도회 31일(화): 송구 영신예배
25일(수): 성탄 감사예배 및 축하 잔치
29일(주일): 송년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2/08
21권 49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43:3-4	인도자
찬송	-----	28장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	268장	다같이
대표기도	-----	-----	김철재 집사
성경봉독	-----	창세기 28-15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나주의 영광 찬양하리라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	에덴동산	이태한 목사
찬송	-----	492장	다같이
헌금기도	-----	-----	인도자
교회소식	-----	-----	인도자
응답송	-----	445장	다같이
축도	-----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박후임 권사	금주기도	황보준호 형제
성경봉독	누가복음 5:1-8	다음주일	김준섭 형제
설교	[십자가의 능력] 이성훈 목사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	151장		
주기도	다같이		

[12월 기도 순서]
12월 15일 (주일) / 박덕철 장로
12월 18일 (수) / 저녁 기도회
12월 22일 (주일) / 박병민 장로
12월 25일 (수) / 성탄 감사 예배

[12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이광희, 김영옥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바누아투 정성욱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이 땅 바투아투로 향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녀서 어려움이 있었던 주원과 예원이에게 삶의 속도 차이가 큰 이곳에서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주원은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주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주원이가 바누아투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운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오클랜드 갈보리교회에서 지원하는 삼마 교회 헌당식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삼마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기도한 이태한 목사님과 교우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섬에는 두 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남, 북 에파테 노회인데 이번에 남 에파테 노회 요청으로 5일간(11월 4~8일) 진행되는 노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현안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노회 모임 때 여 전도회도 함께 모이고 청년회와 각 부서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여러 교회의 여건과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에 홍역이 발병한 곳들이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안 된 아이들, 오염된 물을 먹고 병들어 죽은 아이들도 있어 여러 교육이 필요합니다.

늘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고 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정성욱 김금숙 올림



갈보리 교회 선교팀 지원



SOUTH EFATE 노회 CONFERENCE 참가

기도 제목

- 1) 선교 거점 센터 및 선교 농장 건립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 2) 영육의 강건함과 주원이 대학 면접, 예원이 시험 준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도록.

1. 하나님의 주권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구주 성탄을 소망하는 영적인 준비를 삶 속에서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영적이고 거룩한 분별력으로 시대를 읽고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대림절 - 기다림의 시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5-6)

대림절 (advent). 이 단어는 adventus라는 라틴어로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즉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대림절은 준비와 회개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대림절에 사용되는 강단의 컬러는 회개를 의미하는 보라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를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한 것처럼, 대림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를 회개하며 금식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만큼 기다림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영성 훈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신속하고 편의를 추구하는 즉각적인 (instant) 만족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해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부분을 늦추며 / 기다리며 나를 채우기 위한 생각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삶의 태도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절제와 기다리는 영성을 훈련하면서 나의 말, 나의 소비, 나의 입맛, 또한 미디어 금식 (핸드폰, 컴퓨터) 등 나의 모든 삶의 방면에서 실질적인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절제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향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모든 능력, 권위,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때까지 늦추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좋은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을 감사히 마무리하며 또 허락하실지 모르는 2020년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태한 목사

창세기 2: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